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11월)

일 시		2021. 11. 17. 수. 오후 5시	장 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순정, 김요수, 김유선, 김형순, 류한호, 박수민, 이상석,정은진, 최정욱(9명)/ 서면 의견-양초롱, 한문철		
	회사	김낙곤 사장,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 경영심의팀장(5명)		

## ■ 회의 내용

- 류한호 위원장 : -2021년 11월 광주MBC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지금 우리 주변의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다시 폭발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어려움은 있지만 시청자와 시민을 위한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시청자위원으로 모임을 갖게 됐다. 어렵게 모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지난 10월 20일 시청자위원회 열렸다. 그때 뵈고 한 달여 만에 다시 뵈게 돼 반갑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시청자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창사 57주년 기념식을 잘했고, 창사 57주년 기념사에서 대표이사로서 구성원들에게 광주MBC가 나아갈 방향, 내용을 밝혔다. 무등산과 영산강,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삶을 전하는 광주문화방송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 맛과 멋과 빛과 소리와 향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광주문화방송의 역할을 다하며 로컬 속으로 한걸음 더를 강조했다. 여기에 다 아다시피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정신을 더해서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모습이 된다면 광주문화방송의 역할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위원회에 전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다양한 고견이 나와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광주문화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류한호 위원장 : -창사 57주년을 기념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결하고 정리된 언어로 지역방송 광주MBC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주셨다. 지역과 함께, 지역 사람과 함께 이게 중심이 돼서 말씀해주셨다. 주요 업무 보고를 해달라.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10월 27일 공개홀에서 K 민주주의를 말하는 외국인들이 랜선으로 한국어스피치대회가 있었다. 사업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는 시도였다. 곡성에서 <곡성힐링음악여행>을 10월 29일 녹화를 했고 이번 주 토요일 편성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올해 5.18 즈음에 <랜선 오월길> 프로그램을 했는데, 가을에 <랜선 광주학생운동길>이라는 TV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를 했다. 수상 소식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에 <친애하는 나의 도시>가 은상을 수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외 우수 공동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제작했던 <아시안 탭밴드>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공동제작 사례 발표까지 오늘 했다. 주요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추억의 총장축제와 함께하는 어게인 1983 타이거즈>라는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동시에 유튜브 중계를 한다. 타이거즈 왕조시대에 한국시리즈 우승했던 연도에 맞춰 83년도 멤버였던 분들이 출연해서 그 시대를 얘기한다. TV 방송은

11월 27일 오전 10시경 할 예정이다. 남구와 함께하는 <굿모닝 양림> 특집으로 <정오의 희망곡> 라이브가 이번 주에 있다. ‘이제는 마한이다’라 해서 마한 관련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11월 24일 특집토론 <이제는 마한이다>가 공개홀에서 열리고 이와 함께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마한>은 11월 25일 편성이다.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 중인데 <리플레이스> <오늘도 출근> <레드디쉬> 등이 12월 중, 내년엔 맞춰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수능시험을 마치고 학생, 학부모 힐링하는 음악 콘서트를 기획해서 12월 8일 광주교육청연수원에서 녹화할 예정이다.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콘서트 난장>이 격주로 광산문화회관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 디지털콘텐츠 <얼씨구당>과 <전설의 타이거즈>는 매주 1회씩 업로드 하고 있다. 지상파와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도 계속 열심히 제작하고 있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창사특집 <2030 호남의 미래지도> 5회 연속 강연프로그램을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 마지막 편이 방송된다. 공개홀 스튜디오와 메타버스 연계해서 방청객들은 온라인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제는 에너지와 인공지능으로 5주 동안 전문가 위주로 강연했다. 뉴스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민중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국대사관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미얀마 여학생이 있었다. 현지에서 게시는 광주의 한 교수님과 저희 사장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지역의 대학, 5.18기념재단 등 뜻있는 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 여학생이 광주대에 유학을 오게 됐다. 학비와 기숙사 생활은 광주대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비는 5.18기념재단, 다른 뜻있는 분들이 지원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한 것인데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사연을 뉴스로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국 뉴스에도 나갔다. 지난번에 시청자위원회에서 광주도시계획 문제 연속 제작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 계속해서 부동산 개발의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평동, 첨단3지구 이런 데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모델인 힌츠페터 독일 카메라영상기자가 5.18 때 위험을 무릅쓰고 전 세계에 알렸는데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첫 시상식을 했다. 광주MBC가 제안해서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제정을 하고,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저희가 뉴스에서 보도하고 녹화 중계를 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를 계속했는데 안타깝게도 방역 완화 이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오늘도 신창중학교에서 하루 만에 12명이 확진 판정되는 상황이라서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 등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다. 경각심,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보도 계속 해나가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빅데이터 뉴스는 10주 연속 했는데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다. 공개돼 있는 SNS나 언론보도, 그런 데서 나와 있는 정보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미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코로나 전후의 교육 사회 복지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해서 보도했다. 앞으로 계획은 창사특집 때문에 5주 동안 중단됐던 <윤근수의 시사분석>을 다음 주부터 제작하고, 이금주 태평양전쟁유족회 회장님 다큐멘터리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방송이 이뤄질 것이다. 내년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가 있어서 미리 미리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류한호 위원장 : -가나다순으로 김순정 위원님부터 의견제시 해달라.
- 김순정 위원 : -창사특집 <2030 호남의 미래지도> 프로그램을 보고 간략히 의견 제안을 해본다.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창사특집에 맞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담은 기획이어서 기대도 컸고 기대한 만큼 강연 내용도 상당히 좋았다. 메타버스, AI, 미래 에너지산업, 탄소 중립 등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기획 자체나 내용에서는 흥미롭고 잘 봤다. 시청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한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질의응답이나 강연을 진행할 때 물론 처음 시도하는 형태고 아직은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미래형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강연자 뒤에 자료로 제시했던 부분이 글씨가 작거나 도표나 자료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주제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뒤에 있는 자료가 PPT 느낌, 강연자가 강연할 때 사용하는 PPT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아쉬웠다.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으로 그것을 구성했다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흥미롭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는 내용 자체가 호남의 미래지도에 대한 주제였는데 좀 더 밀착적으로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산업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좀 개론적인 얘기나 원론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구성적으로 제한이 있었겠지만 향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좀 더 한 걸음 더 지역민에게 들어오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면 많은 호응도 있고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좋은 기획이어서 빠지지 않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광주MBC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긍정적이어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가웠다.
- 김요수 위원 : -사회현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는 것 뉴스가 시대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광주MBC가 해서 좋다.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카더라 식의 소문, 혹은 짐작으로 접근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점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좋았다. 그런데 뉴스에도 흔히 그런 일이 있는데 퍼센트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명이 투표를 했을 때 20%를 얻으면 20명이다. 1,000명이 투표를 해서 20%를 얻으면 200명이다. 20명과 200명은 차이가 크지만 보도를 했을 때 단순히 20%다 하면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1억짜리 집이 20% 오르면 2천만 원이다. 어떻게 모아서 감당할 수 있다. 10억짜리 집이 20% 오르면 2억이다. 이것 모으려면 빚을 내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그런데 똑같이 20% 올랐다고 말하는 분석은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퍼센트만 따지지 말고 숫자를 따져서 서민 감각에 맞는 그런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 광주MBC가 줄기차게 정의와 민주에 관한 뉴스를 많이 해서 참 좋다.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아쉬운 점은 약자에 대한 배려 뉴스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 최근에 우정사업본부 택배 관련 뉴스 이런 게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약자들이 겪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날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뉴스 꼭지가 생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 <2030 호남의 미래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전문가들이 실감 나게 하는 강

의도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좋은 강의였다. 지금까지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주로 과학 분야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제작 계획이 생긴다면 시민들의 관심 분야인 문화, 육아, 교육 이런 포맷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웃그저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뉴스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실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한 번 더 주택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택이 자본증식 개념이 아니라 거주 개념에서 행복을 찾는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강의식 프로그램이 유튜브에도 많이 자주 탑재가 되어 언제든지 미래의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제작비도 조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김형순 위원 : -앞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2030 호남의 미래지도>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뤘다. 대부분 시대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탄소중립도 총론으로는 다 찬성하고 문제는 없다.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방법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행해가는가의 문제와 왜 속도를 붙이지 못하고 제약요건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신청하고 하는데에도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얘기와 총론적인 얘기만 던져 버리고 가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고는 문제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 현재 풍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간을 비싼 비용을 들여놓고 그리드에 올리지 못해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전력 수급 컨트롤을 못해서 조정이 어려우니까 태양광을 신청해도 그리드에 올리지 못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들도 다뤄주면서 과연 우리가 뭘 개선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 제시가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 정은진 위원 : -창사 57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해준 프로그램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서 힘이 날 것 같다. 방금 김형순 위원께서 제주도는 풍력이 남아 돌아서 계통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바람으로 전기는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전남도에서 태양광이 계통연계가 안 되는 지적을 해주신 거다. 광주는 도심 태양광 계통연계 부분은 아직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을 지적해주신 것 같다. 김요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말씀해주신 것도 좋은 아이템이다.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면 큰 주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탄소중립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에너지 전환이 얘기되는 것이고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물, 교통 이런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획을 가지고 부문 단위로 이것을 촘촘하게 기획한다면 훨씬 더 알차고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광주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통 부분이다. 30%다. 주거에서 20%, 상가 건물에서 20%다. 주거와 상가가 결국 건물이다. 건물이 40%고 교통수단이 30%, 산단이 2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광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녹색 건물, 건물에서 효율 끌어올리는 부분이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 제기된다는 부분에서 종합적인 기획에서 접근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스퍼 때문에 광주가 유쾌하고 즐거웠다. 거기에서 이것이 캐스퍼 구입하는 주

민들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내용이 나와서 시의회에서도 왈가불가 됐다. 예산안을 슬쩍 봤더니 예산 반영이 됐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캐스퍼가 내연기관차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 상생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취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GGM은 광주형 일자리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한다. 조례에 인증을 못 받았고, 상생형 일자리 인증만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예산 세워진 것은 광주형 일자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면 좋겠다.

-COP26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번에도 공유했던 것처럼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내놔다. 광주시는 전 세계 2050년 목표보다도 5년 단축해서 했는데 여기에 실천 원년인 올해까지도 그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선언적인 목표,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방선거 앞두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촘촘하게 점검해주길 기대한다.

- 최정욱 위원 : -<뉴스데스크> 11월 5일에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료진 2명 구속 내용이 나오면서 광주 서구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왔다. 사실 저희 병원과 관련이 있어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다. 광주 전남북 통틀어서 척추전문병원이 2개가 있다. 2곳 모두 광주 서구에 있다. 한 곳이 화정동이고 한 곳이 치평동이다. 방송이 서구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이라고 나오니 많은 환자들이 헛갈려 한다. 방송이 한 번 나갈 때마다 환자 수나 수술 수, 문의전화도 많이 와서 진료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 내용이 사실 병원을 꼭 집어서 어느 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아는데 서구라고만 나오는 것보다 서구 화정동이라고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11월 12일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것인데, 의대 신설 논의 중단 이제는 정부가 결단할 때 이 내용이다. 요지는 정부 입장에서 전남권이 소외되었다고 하니까 전남권에서 의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사실 전남에는 의대가 없다. 의협 입장은 다르다. 광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환자나 의사나 마찬가지로 자기는 서울로 가고 싶은 것이다. 과연 의대를 뽑아놓는다고 교육이 제대로 될까, 인프라가 될까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왔다 해도 거기에서 근무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몇 번 뉴스를 보며 느꼈던 것이 마치 빨리 의대를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들려서 심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 박수민 위원 : -사실 회의 참석할 때마다 칭찬도 하지만 개선해야 할 점 이야기하는 게 고민도 되고 시청자위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나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 아이템이나 내용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11월 16일에 나온 뉴스 중에 상생카드 전남에서도 사용 가능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 정치권에서는 광주 전남의 통합정책, 상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현장의 고민을 담고 있는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생카드가 어떻게 쓰이고 이것도 전남과의 경제적 통합의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확장적인 좋은 아이টে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가 타 지역 사례에서는 경상도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아이টে이였다.

-최근 MBC에서 도시계획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수십억 들여서 도시 재생사업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형 건설사가 들어온다는 뉴스였다. 광주가 도시계획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사업이 투입된 이 공간조차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뉴스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뉴스였고 꼭 다뤄줘야 할 아이템이어서 굉장히 좋았다.

-최근에 MBC가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 힘을 많이 쓰고 있다고 느꼈다. 디지털 콘텐츠 <리플레이스> 공간이 영상도 좋고 내용도 좋았다. 그런데 지역이 지역만의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리플레이스>를 광주MBC가 제작한다면 지역의 이야기, 중앙의 좋은 콘텐츠,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콘텐츠에 힘을 실는 방법이 아닐까 고민이 들었다. 중앙에서 만든 콘텐츠와 다를 바 없다,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광주MBC에서 왜라는 물음표가 남는다면, 그런 연결고리, 지역 이야기를 담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18기념재단의 도움으로 미얀마 학생이 이렇게 했던 것은 언론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역할은 문제 제기도 하고,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한 언론사 중에 설록이라고, 대구의 간병인, 아버지를 간병하던 한 청년이 굶겨서 살인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 기사 하나가 청년들, 정치인, 시민단체의 탄원서를 내게 하고 이게 단순히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였다,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표를 남게 한 사건이었다. 언론의 역할 중요하다고 보고 MBC가 많은 콘텐츠를 내고 있지만 한 가지 뉴스라도 명확한 관점과 철학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미얀마 같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면 지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콘텐츠 하나하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다루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 감수성이나 성소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교육, 시민에 관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도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 이상석 위원 :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날씨 전해주는 이가 있다. 흔히 말하는 기상캐스터의 복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저녁과 아침에 전달하는 중앙방송과 지역에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의상이 사실은 너무 밀착돼 있기도 하다. 뒤에서 구태여 옷을 당기고 색상도 원색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성 상품화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뉴스에 집중하는 걸 떨어뜨린다. 요즘 공중파 다른 방송에서는 바지 입고 나오고 편한 옷을 입고 나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끔 보면 거슬리는 게 있어 오히려 날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캐스퍼 얘기도 하셨는데 뒤편에 보니까 의견 처리 결과도 읽어봤습니다만 지자체 예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비위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비위는 없다.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광주시 재난지원금 문제가 추가로 내년 1월에 10만 원씩 전 시민에게 다 주겠다는 거다. 쟁점이 두 가지다. 부채가 얼마인데 하는 것과 선거 앞두고 하는 거냐다. 사실 핵심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광주시는 여태까

지 워 했느냐 하는 것이다. 추경에 신규사업은 다 넣어놓고 내년엔 빛내서 재난지원금 주는 게 적절한가까지 봐야 한다. 예산에 대한 철학 얘기를 계속하는 거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용섭 시장이 캐스퍼 문제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자꾸 당연한 듯이 던져놓고 압박해나가는 걸 계속 비춘다. 광주에 숨어 있는 돈이 1조다. 기금의 8천억 이상이 숨어 있다. 그런데 빛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적절한가 따져보는 시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비위를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그것을 다른 편으로 MBC는 모든 언론이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렸으면 좋겠다. 아까도 정 위원님 말씀했지만 캐스퍼 문제도 사실은 특혜다. 특별한 혜택이 특혜지 다른 게 아니다. 내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준다는 자체가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정사실화 시키고 가는데 사실 광주시는 살림하는 집단이다. 지방의회가 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기구고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밀어부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뉴스 그렇게 나온다. 소상공인도 그렇고 시민단체총연합회에서도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있는 돈도 안 쓰면서 빛을 내서 10만 원씩 다 준다고 하니까 뉴스 예산에 대한 철학에 대해 달리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류한호 위원장 : -그동안 보고에서 본 것처럼 광주문화방송에서 역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폭넓게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으로 보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노력의 결과가 방송 프로그램 관련 상을 수상한다는 게 쉽지 않은 데 수상을 2건이나 해서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왔다는 걸 상으로 증명하는 것 같다.

-지역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보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줬다. 빅데이터 기획을 지난 9월부터 10차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광주지역 사회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다양한 각도로 정리해보는 방식으로 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해서 문화 소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이버범죄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노인 소외,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지난 한 달 사이에 다뤄졌다. 코로나19와 학생, 소상공인, 일자리 문제, 경제 정책의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 우울감 이런 것까지 폭넓게 잘 다뤄졌다. 이런 것들이 느슨한 분석이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한 접근 방법을 실험해봤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적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 방송 프로그램, 뉴스 보도에 미래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린다.

-광주문화방송의 약한 점이 프로그램이 좋은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과 접촉점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홈페이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방송과 시청자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김유선 위원 : -두 가지 고민 점이 있어 말씀드린다. 여러 위원님께서 최근에 <2030 호남의 미래지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한다. 저는 아무래도 제 몸은 비장애이기도 하지만 장애 영역에 대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뉴스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좋은 취지에

그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델이 나올 때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뤄주는 부분이 많다. 명칭상 취약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과연 쓰는 부분이 과연 인권이나 아니냐를 따라서 삶의 모습에서 다양성의 하나이지 그것이 잘살고 못 살고 크나 작으냐의 구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표현상의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기획 <2030 호남의 미래지도> 하면서 세 차례 봤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방송 안에 수어로 쓸 수 있는 자막이 나왔나? 내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누구나 그 시간대에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 누구나 배려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탄소중립이나 이런 언어들 사실은 저도 어렵고 힘들다. 그냥 하시는 이야기 들을 뿐이지 이게 어느 정도 감흥이 돼서 실생활에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고 내가 나중에 써야 하는지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왕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 자막 정도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계속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류한호 위원장 : -간부들의 답변을 듣겠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시사보도본부에 대해 많아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넘친다. 김순정 위원이 말씀하신 <2030 호남의 미래지도>서 메타버스와 공개홀이 만나는 부분이 어색했다는 부분 인정을 한다. 메타버스를 구축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사실 KT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오픈 소스를 사용했다. 저희 프로그램의 컨셉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질문 주고받는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에 할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다. 지역에 좀 더 밀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이번에는 총론이었다면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산업화, 소득화 되고 내 자식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뉴스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서민 감각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서민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모든 지역의 기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 후배기자들에게도 전달해서 항상 가슴에 새기자고 얘기하겠다. 김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 설비를 하고도 그리드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다고 들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취재해보도록 하겠다. <2030 호남의 미래지도>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창사특집까지 기다리지 않고 뉴스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뉴스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정은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도 비슷한 문제다. 탄소중립 사회는 우리가 가야 할 절체절명 과제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관심을 기울이고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서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 탄소중립 2045도 구호만 그치지 않도록 광주시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단 하나 캐스퍼 지원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돼있고 내년에는 다섯 배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 어느 정



도 액수인가, 저희도 논란이 있었다. 특혜다, 선거 앞두고 눈에 뵈히 보이는 게 아닌가 하기도 한다. 경차에 정부에서 취득세를 50만 원까지 주고 있다. 이것도 특혜라면 특혜일 텐데 무거운 차, 경유차 보다는 작은 차로 소비를 유도해서 그나마 탄소중립을 줄여보려는 노력인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광주시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니 여기에서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더 많은 협력 업체들이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은 틀림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일자리를 당장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려보는 것도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딱히 뭐가 옳다고 저희도 잘 모르겠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너무 한쪽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보도에 있어서 항상 올바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최정욱 위원 말씀하신 대리수술 그게 인천에서 21세기병원 거기는 사건이 터지고 초반부터 병원 이름이 공개가 됐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 이미 검찰이 송치됐으니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병원 이름이 밝혀질 것 같다. 그때까지는 관련 보도를 자제하는 것도 생각해보겠다. 박수민 위원님 지적하신 선한 영향력 그 부분은 정말 기자들이 선한 영향력 보도에 있어서 콘텐츠 내용 이런 것도 품질 좋지만 그 콘텐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기자 개개인의 감수성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항상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상석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기상캐스터 복장은 얘기를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다른 나라 BBC 보면 장애인도 하고 한다. 편한 복장을 하도록 하겠다. 숨어 있는 돈이 1조 원이 있는데 굳이 빚을 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숨어 있는 1조 원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김유선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생각하지 못했던 수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해설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음에는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다. 취약이라는 명칭과 작은 평수가 동일시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양하도록 하겠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박수민 본부장이 말해야 하는데 빠진 게 있다. 방문진 지역프로 그램대상 동상에 <마웅과 샤샤의 광주일기>가 수상했다는 말씀드리다. 한문철 위원님 정율성동요경연대회를 관심 있게 보시고 서면으로 말씀을 남겨주셨다. 정율성 선생의 이런 자료나 사료 관련 부분이 잠깐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 100% 수용한다. 그동안 여러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브릿지 형태로 넣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다음 제작할 때는 이런 것도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 양초롱 위원님 지적과 박수민 위원님 지적은 중요한 지점인 것 같다. 광주 MBC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 정체성, 지역 밀착성 이런 것이 무엇인가 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체성은 양초롱 위원님이 제시해주신 부분, 저희가 <전라도닷컴>이나 KBS <남도지오그래피>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니다. 색깔을 정확하게 제한하고 그쪽 방향으로 깊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KBS <생생정보통>이나 서울MBC에서 제작하고 있는 <생방송 오늘아침> <생방송 오늘저녁>과 같은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다. 지역색이 많이 들어가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타 지역의 이야기까지 다 담아내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매거진형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좀 더 로컬 지향, 좀 더 로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이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박수민 위원님 디지털 콘텐츠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리플레이스> 부분 지적을 하셨다. 이 역시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경계가 없다. 외국에서 보는 사람이 댓글을 달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보기도 하고 우리 지역 사람만 보는 콘텐츠가 아니다. 숫자가 다 드러난다. 조회수가 나오고 수익이 얼마인지 다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가 댓글로 다 나타난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반영하면 좋겠다, 누가 출연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때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하는 숙제다. <리플레이스>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영상의 퀄리티가 높다. 광주MBC에서 만든 거야? 서울에서 만든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제는 양림동에 있는 이이남 스튜디오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 지역 것이니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지역 것들만 소개하는 것이 방향인가라는 역질문도 가능할 것 같다. 우리 지역 핵심소재나 본질은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 그러나 영역이나 소재는 어디로든 확장할 수 있는 것,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방향 이런 것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을 자주 던져주면 좋겠다.

○ 김낙곤 사장 : -다양한 의견 고맙다. 두 본부장이 지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적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것을 더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청자위원님의 고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변화하고 더 좋아졌으면 하는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음 번에는 바뀐 것, 달라진 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미안마 학생 관련해 선한 영향력 말씀해주셨다. 그런 좋은 뉴스가 나가고 지역 내에 뚝뚝다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뚝뚝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내년에는 광주인권기금처럼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광주문화방송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표이사로서 갖고 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병원 관련 내용은 바로 밀접한 것 같다. 우리도 실명으로 기사 써도 되지 않나 본부장들은 검토하길 바란다. 의대 논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공기관이나 도청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자들은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만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한다.

○ 류한호 위원장 :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셨다. 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지적이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디스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을까를 방송사도 고민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좋은 방송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그 결과가 시청자위원회인 것 같다. 오늘 특히 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관한 보도의 문제 좀 더 잘해달라 이런 말씀, 취약계층은 우리의 이웃이고 이웃의 삶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만드는 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촉구하고 그걸 공유하고 모두가 다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좀 더 취약계층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방송에 표현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이야기가 표현되도록 하면 좋겠다. 지난번 창립기념 때 사장님이 제시한 게 광주문화방송의 미래비전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지역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자는 이것을 잘 실천하면 좋은 방송, 지역민과 지역과 함께 가는 방송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회를 마치겠다.

#### □ 서면 의견

##### -양초롱 위원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와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도 현장에서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다.

1. 지난 의견에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실천 운동과 관련해서 언론의 취재 방향과 역할 등 어떤 준비가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개개인의 활동에 주목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물론 시민들의 활동에 관한 관심과 취재 또한 무척 가치 있는 일입니다)이 아니라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업, 특히 관 영역에서 필요 없는 사용(라이트 등, 야간 간판 등), 재활용공장(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여부가 잘 진행되는지 등) 문제, 공공 영역에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인지 및 실천 현황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피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를 하면 좋겠다.

2.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향을 잘 모르겠다. 전라도 ‘문화’(자연, 문화유산, 예술 등)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라도에서 일어난 모든 영역(사건 등)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인지. 초기와 달리 점차 사라지는 <오매 전라도>의 구체적인 정체성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 -한문철 위원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MBC 정율성동요경연대회가 광주MBC 공개홀에서 광주 전남 7개 초등학교와 전북 김제 1개 초등학교 등 총 8개 초등학교가 2명~15명의 중창단으로 구성되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경연대회는 김두식 MC가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로 추앙받는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의 예술혼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행사로 올해 8번째라고 소개했다. 동요를 통해 초등학생이 한중 문화수교의 친선대사로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참가한 8개 팀은 정율성의 노래 1곡, 자유곡 1곡 총 2곡으로 경연을 펼쳤다. 우열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노래뿐만 아니라 랩, 율동, 부채와 태극기 등 소품 활용을 통한 다양한 구성으로 공연을 펼쳤다. 임해철 호남신학대학 교수님의 심사평처럼 고음처리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참가학교 전체에게 참가상을 수여한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심사를 통한 우열을 가리는 것 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였다는 행사 주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최우수상 시상자로 참석한 장창광 주광주중국총영사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에게 한중문화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임을 전달하는 한편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내년 행사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참 흐뭇한 행사였다. 정율성 선생에

대한 소개 부분이 역사적인 사료 등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되었다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